제5장 옛 정신을 본받으라

도 입

국가나 기업의 당면과제를 파악했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를 어떤 태도나 정신으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비로소 문제해결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 원칙이나 방법이 잘못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개혁한다고 해 놓고 개악인 경우가 허다한 것을 보지 않았는가?

이 장에서는 선왕(先王)이 한 것을 본받으라고 권하고 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한다면 과거의 모범적 사례나 모델을 본받거나 헌법의 정신이나 민주주의의 원칙에 충실해야지, 당파나 지배층의 이익만을 고려해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선왕의 무엇을 어떻게 본받을 것인가?

본 문

[율곡의 풀이]

비록 마땅히 처리해야 할 시무(時務)를 밝게 안다 하더라도 선왕(先王)의 정치(이상정치)를 회복할 수는 없다. 이것은 비유하건대 마치 자나 컴퍼스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네모나 원을 그리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세상의 올바른 도리를 만회(挽回)하여 훌륭한 정치를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선왕을 본받는 일을 다음에 두었다.

[맹자]

이루(離婁)의 밝은 시력과 공수자(公輸子)의 교묘한 기술로도, 규구(規矩 : 컴퍼스와 곱자)를 쓰지 않으면 네

모와 원을 그리지 못하고, 사광(師曠)의 밝은 청각으로도 6률(6률6려 곧 12율을 뜻함)을 쓰지 않으면 5음(궁·상·각·치·우의 다섯 음)을 바르게 탈 수 없으며, 요순의 도(道)로도 인정(仁政)을 행하지 않으면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없다.

〈주석〉 범씨(范氏)가 말하였다. "이것은 천하를 다스리는 데는 법도(法道)가 없을 수 없음을 말한 것인데, 인정(仁政)이라는 것은 천하를 다스리는 법도이다."

[맹자]

지금 어진 마음과 어질다는 소문이 있으면서도 백성들이 그 은택을 입지 못하여, 후세에 모범이 될 수 없는 것은 선왕의 도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석〉 범씨가 말하였다. "제선왕(齊宣王)은 한 마리의 소가 사지(死地)로 끌려가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여, 양을 가지고 대체하라고 하였으니, 어진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양무제(梁武帝)는 종일토록 단 한 끼의 거친 식사만을 하고, 종묘에서는 밀가루로 제물을 만들어 썼으며, 사형을 시킬 때에는 반드시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천하가 그가 인자한 것을 알았으니, 어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제선왕 때는 제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았고, 양무제의 말엽에는 강남(江南)이 크게 어지러웠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는 어진 마음과 어질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선왕의 도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맹자]

그러므로 한갓 착하기만 한 것으로는 정치를 하기에 부족하고, 한갓 법도만 가지고는 저절로 행해질 수 없다. 높아지려면 반드시 언덕으로 올라가야 하고, 낮아지려면 반드시 개울과 못으로 내려가야 하니, 정치를 하면서 선왕의 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림쇠(컴퍼스)와 곱자는 네모와 원의의 극치이며 성인은 인륜의 극치이다. 임금 노릇을 하려면 임금의 도를 다해야 하고, 신하 노릇을 하려면 신하의 도를 다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요순을 모범으로 삼아야 할 뿐이다. 순이 요를 섬기던 방법으로 임금을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임금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요, 요가 백성을 다스리던 방법으로써 백성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백성을 해치는 사람이다.

[율곡의 풀이]

삼대(하·은·주)의 도를 오늘날에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정자(程子)의 논의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다만 세상의 풍속에 가려져 문무(文武)의 정치를 시행하지 못하고, 빈말이 되고 말아 상하 수천 년간 쓸쓸

한 밤이 지속되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어진 정치를 꼭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현의 말이요, 옛날의 도(道)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속된 무리의 말이다. 당대의 임금이요 세상의 주인인 사람이 성현의 말을 믿지 않고 세속의 말만 깊이 믿는 것은 어째서인가? 스스로 도를 향하려는 뜻이 없고, 또 어진 이를 좋아하는 정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 하던 대로 하기를 즐기고 진작(振作)하기를 거리끼는 것이 당연하다.

다행히 임금이 옛날의 도를 행하려고 유신(儒臣)을 친근히 하여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속된 무리들의 비방이 국이 끓듯 끓어오르고 매미 울듯 시끄럽게 떠들어 대어 반드시 저지하여 무너뜨린 뒤에야 그만둔다. 임금이 도를 독실하게 믿지 않고 어진 이를 깊이 알고자 하지 않는다면 어찌 본심을 지켜 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개 속된 무리의 고질은 갑자기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옛날의 도를 시행한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하여 처음에는 도리어 사리를 거스르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필연적인 사세이다. 그러나 여기에 구애되어 마침내 일할 수 없다면 떨어지기만 하는 세상의 도리를 언제나 만회할 수 있겠는가? 비유하건대, 냉질(冷疾)에 걸린 사람이 가슴에 열(熱)이 날 때 냉질을 다스리는 약을 조금 쓰면 속이 답답하고 막히는 증세가 더욱 심해지고, 열이 날 때 약성이 차가운 약을 마시면 뱃속에 냉기가 쌓여 치료할 수가 없어서 결국 죽고 마는 것과 같을 뿐이다.

아! 소위 후세의 선비라는 자들이 읽는 것은 『서경』의 전(典)·모(謨)·고(誥)·훈(訓)이요, 사모하는 것은 공자·맹자·정자·주자이니 누가 감히 성인을 비난하는 말을 입 밖에 내겠는가마는 그러나 처신하거나 정치하는 데 이르러서는 크게 그렇지 않음이 있다. 한번 성현의 가르침을 가지고 나라에 베풀고자 하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종족들도 깜짝 놀라 이리 배척하고 저리 억눌러 예측할 수 없는 화가 당장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생각한다. 만일 일상적인 것에 안주하고 옛것을 지키는 이론을 들으면, 이구동성으로 찬동하고 화답하면서 포백(布帛)이나 숙속(菽粟)처럼 실속 있는 것에 비하는 듯하니, 과연 이와 같다면 성현이 헛말을 만들어 후세 사람을 속여 오훼(烏喙 독약)를 맛있는 음식이라고 칭찬하고, 물과 불을 밟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향리의 거칠고 더러운 말이 곧 공평하고 적실해서 만세에 전해도 폐단이 없다고 한다면, 육경(六經)을 읽을 게 뭐며, 오교(五教 : 오륜의 가르침)를 베풀 게 무엇이겠는가? 아! 신하들이 옛날의 도를 비난하고 훼방하는 것은 비열한 사람들의 본심인데, 임금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왜냐하면 저 비열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작록(爵祿)이요, 탐내는 것은 권세요, 구하는 것은 뇌물이요, 즐거워하는 것은 사치와 음란함이요, 편하게 여기는 것이 안일함이다. 때를 노려서 벼슬길에 오르고는 지기(志氣)가 충만해져서 구차하게 당장 눈앞에 화패(禍敗)가 보이지 않는 것만을 다행으로 여길 뿐이니, 장래의 종사(宗社)에 대한 근심을 그들이 어찌 근심거리로 삼겠는가?

진실로 임금이 삼대(三代)의 다스림을 회복하는 데 뜻을 두고, 어진 신하를 찾아서 정사를 맡긴다면, 그들은 작록을 보존할 수 없을 것이고, 기강을 잡는다면 그들은 권세를 굳힐 수 없을 것이며, 조정이 맑고 밝아지면 뇌물을 받을 수 없을 것이고, 예의로써 풍속을 이룬다면 저들만 음란하고 사치스러울 수 없을 것이며, 공업(功業)을 살펴서 내친다면 오래도록 안일(安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금이 옛날의 도를 시행하는 것이 소인에게는 바로 짐독(鴆毒 : 짐 새의 독)이 되는 것이다. 어찌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다하여 고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간혹 어진 사대부라 하더라도 식견이 천박하고 짧아서 편안한 것만 좋아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이라도 따라 도우면 더욱 임금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다. 선비로서 재주와 도를 품고 경세제민(經世濟民)할 수 있는 이는 또 모두 자신을 알아볼 사람을 기다리며 재주를 감추고서 함부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임금께 알려질 수가 없다. 조정에서 옛날의 도를 말할 수 있는 이도 뜻만 크고 야무지지 못한 부류에 불과할 뿐이니, 어찌 치도(治道)의 본체를 밝히거나 뭇사람들의 지껄임을 제지시켜, 임금의 마음이 쏠리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옛날의 도를 끝내 회복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반드시 임금께서 깊이 생각하고 시원하게 결단하여 반드시 학문이 밝고 행동이 고상하며 재주와 식견을 겸비한 선비를 얻어서 보좌하게 하여 해마다 그해의 공효가 있게 하여 속된 의논이 그사이에 개입되지 않게 한 연후에 의심하고 비난하던 자들이 차츰 믿게 될 것이고, 비방하고 조소하던 자도 차츰 복종하게 될 것이며, 시기하고 질투하던 자도 차츰 복종하게 되어서, 옛날의 도를 거의 실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해 설

율곡선생이 여기서 선왕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선왕의 정신을 본받을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한 것 같다. 옛것이라고 다 케케묵고 비현실적이라는 비방이 있을 수 있지마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앞서 소개한 경전과 율곡의 풀이를 종합하면 결국 유교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곧 인의(仁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 그것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그런 인의의 정치를 펼치는데 있어서 왕이 주위의 눈치를 보면서 망설여서는 안 된다고 한다. 만약 임금에게 그럴 마음이 있다면 어진 신하를 찾아 정사를 맡겨 기강을 바로잡으면 위선적이고 이익을 탐하는 신하들을 물리쳐 바른 정치를 펼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과연 왕에게 그럴 마음 곧 현실의 안일한 데서 벗어나 나라를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래서 선생은 이렇게 긴 말로 선조를 설득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선왕을 본받는다는 것은 중국 고대의 요순이나 하·은·주 삼대의 정치를 본받으라는 것으로서, 당시의 제도를 고증하기도 어렵겠지만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대로 시행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선생이 당시 조정의 신하들이 반대하는 이유로 보았는데, 선생의 생각은 너무 비현실적인 것인가?

선생이 이렇게 선왕을 본받으라 한 것은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한 말인 것 같다. 곧 백성들에게 어진 정치를 베풀라는 원칙을 강조한 말로 보인다. 사실이지 우리는 개혁이 뭐니 하면서 헌법정신을 훼손하거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경우를 본 역사적 경험이 있다.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이 때 민주주의 기본정신에 충실하자는 것은 결코 케케묵은 주장이 아니다.

선생은 임금이 이런 기본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두려움 없이 실행해야 하며, 어진 신하를 찾아 정사를 맡기면 가능하다고 역설하였다. 선왕을 본받는 일이 결코 과거의 생활로 되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부조리한 정치상황을 개혁하자는 뜻이었다. 마치 불교나 그리드도교의 개혁주의자들이 부처나 예수의 본래정신으로 되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까? 그래서 선생도 "뒷세상의 임금이 삼대와 같이 성대하게 다스리는 것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마는, 다만 고금이 다르기 때문에 감히 그대로 시행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인정은 하면서도, 정자(程子)가 정말로 그럴 수 있다고 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생략하고 싣지 않았지만, 정자의 그것도 실은 현실적 문제로서 빈부격차 해소와 교육과 예법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그 정신은 옛 선왕의 그것에서 가져온 것이다.

생각해 볼 문제

1.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또는 내가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어 본받기를 바라는 사람을 '롤 모델'이라고 한다. 율곡 선생은 옛날의 성현(聖賢)들을 롤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어떤 점에서 가능할까요? 가령 지금 사람 가운데 누군가 '공자님이 롤 모델이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또 '충무공 이순신이 나의 롤 모델이다'라고 말하거나 '빌 게이츠가 나의 롤 모델이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무엇을 모델로 삼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롤 모델은 누구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2. 민주주의(民主主義)와 민본주의(民本主義)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민주주의는 오늘날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고, 민본주의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백성들을 위하여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유학에서 줄곧 주장해 온 정치 이념이다. 그러니 민주주의의 민본주의의 정치 주체는 엄연히 다르다. 그렇다면 시민(市民)과 백성(百姓)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시민과 백성의 삶 중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3. 우리는 종종 '근본주의'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다. 종교나 사상에 대한 태도를 두고 일컫는 말이다. 흔히 종교에서 예수나 부처의 가르침에 충실하자고 하면서 문헌에 나타난 예수나 부처의 행위를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은 근본주의자라고 한다. 사상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사상가의 사상을 그대로 따르자고 한 것이 그런 것인데, 여기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예수나 부처의 말을 곧이곧대로 따라 행동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뜻이다. 언어와 문화는 변하기 마련이고 사상은 항상 그 배경을 갖고 있어서, 그들의 말을 해석해서 이해해야지 의심 없이 언어에만 매달리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게 되고 정작 달을 못 보게 된다는 비유에 해당된다. 그런 뜻에서 율곡 선생이 선왕을 본받자고 한 것도 이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옛것이 오늘날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공허한 구호나 이념만 내세워 결국 정쟁을 유발하여 상대편을 배제시키거나 공격하는 빌미로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성을 완화시키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본받는 방법이 무엇일까? 본문과 해설을 읽고 말해 봅시다.

한문 익히기

위고 필인구릉 위하 필인천택
爲高하되 必因丘陵하며 爲下하되 必因川澤이라하니
위정 불인선왕지도 가위지호
爲政하되 不因先王之道면 可謂智乎아(『맹자』).

한자 풀이와 해설

爲 : 하다, 만들다/高 : 높다/必 : 반드시/因 : 따르다, 말미암다/丘 : 언덕/陵 : 언덕/下 : 아래, 낮다/川 : 내/澤 : 못/政 : 정사/不 : 아니하다/先 : 먼저/王 : 임금/之 : ~의/道 : 도리, 방법/可 :~할 수 있다/謂 : 이르다, 말하다/智 : 슬기, 지혜롭다/乎 : 어조사

*可謂~乎 : ~라 말할 수 있는가?

*주어는 생략되어 있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위정(爲政) : 정치를 행함

*선왕지도(先王之道) : 옛날 성왕(聖王)의 도리

해석

높아지려면 반드시 언덕을 따라 올라가야 하고, 낮아지려면 반드시 개울과 못을 따라 내려가야 하니, 정치를 하면서 선왕의 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규구 방원지지야 성인 인륜지지야
規矩는 方圓之至也요 聖人은 人倫之至也니라
욕위군 진군도 욕위신 진신도
欲爲君인댄 盡君道요 欲爲臣인댄 盡臣道니라(『맹자』).

한자 풀이와 해설

規 : 컴퍼스/矩 : 곱자/方 : 모/圓 : 원/之 : ~의/也 : 어조사/聖 : 성스럽다/倫 : 인륜/至 : 지극하다, 끝/欲 : ~하고자 하다/爲 : 되다, 하다/君 : 임금/盡 : 다하다/道 : 도리, 길/臣 : 신하

*欲爲君 : 임금이 되려고 하다 곧 임금노릇을 하려고 하다의 뜻

*方圓 : 네모와 원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규구준승(規矩準繩) : 목수가 쓰는 그림쇠(컴퍼스)·곱자·수준기·먹줄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도나 기준을 말함

*인륜(人倫) :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또는 질서

해석

곱자와 그림쇠는 네모와 원의 극치이며, 성인은 인륜의 극치이다. 임금 노릇을 하려면 임금의 도를 다해야 하고, 신하 노릇을 하려면 신하의 도를 다해야 한다.